

# 김우진 희곡 연구

-작가와 작중인물의 심리적 전이관계를 중심으로-

윤금선\*

## <차례>

1. 머리말
2. 모성에 결핍과 양가심리
3. 아버지 콤플렉스와 자기혐오
4. 불안과 자살의 심리
5. 심리적 투사물로서의 작품

## 1. 머리말

기존의 김우진 희곡 연구는 그의 생애와 희곡세계, 근대의식의 발현으로서의 작품성, 기호학적 분석, 표현주의 작품의 성과 등에서 이루어졌는데, 본고에서는 심리분석적인 방법으로 작품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텍스트는 <두테기 詩人の 幻滅>, <難破>, <山돼지><sup>1)</sup> 등이며, 작가심

\* 한양대학교 강사

- 1) 연구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는 서연호·홍창수가 편한 『김우진전집』(1)(연극과 인간, 2000)에 실린 <두테기 詩人の 幻滅>(1925), <難破>(1926), <山돼지>(1926) 등 3편이다. 김우진의 희곡은 이외에 <正午>(?) , <李永女>(1925?) 등 2편이 더 있으나, 작가 투영의 인물분석이라는 본고의 심리분석적인 방법에 부적절한 작품이라 여겨 제외했다. 이하 인용은 『전집』(권수번호)로 약하여 쓰겠다.

리가 어떻게 작품의 인물들에게 투사되었는지에 중점을 두며 살피고자 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은 그가 과거에 체험한, 특히 어린 시절에 체험한 상처(trauma)나 박탈(deprivation), 좌절(frustration)을 훗날 공상과 백일몽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만족시키려 한다고 보았다. 작가의 작품은 바로 이러한 욕구충족의 한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작품이 처녀작일 경우, 혹은 젊은 나이에 창작된 것일수록 옛날의 상처와 그 정서가 변형, 위작이 안된 채로 노출되는 수가 많다.<sup>2)</sup> 이때는 아직도 자아방어 기제와 예술적 기교가 미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제시한 세 작품은 습작 단계의 작품이면서 특히나 작가의 자전적 색채가 강하다. 작가의 심리적인 결핍 혹은 소망 등은 작품 속의 인물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역으로 말하자면 극중 인물들의 결핍감 혹은 그 실현된 소망은 작가의 상처와 욕망을 투영한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난파>와 <산돼지>는 표현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는 작품들로서, 무의식의 탐구를 한 토대로 삼고 있는 작품들이다. 그래서 두 작품은 작가의 무의식이 작품으로 어떻게 전이되었는가를 탐구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작품의 인물이 작가의 심리를 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심리탐구를 토대로 한 것이 표현주의라는 점에서 언급한 세 편의 희곡은 심리분석적인 방법으로 고찰해 볼 만하다고 여겨진다. 구체적인 연구에서는 모성에 결핍과 양가 심리, 아버지 콤플렉스와 자기혐오, 그에 따른 불안과 자살의 심리 등을 다룰 것인데, 작가의 심리와 극중 인물들을 연관지으면서 고찰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김우진이 어머니를 일찍이 사별하고, 여러 계모 밑에서 자랐다는 점에서 모성이 결핍되고, 봉건 가족제도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억압받고, 자살로서 생을 마감했다는 전기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물들의 심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대개가 전기

2) 김열규 외, 『정신분석과 문학비평 개관』, 고려원, 1992. 151면.

적 고찰 내지는 표현주의적 고찰 중심의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된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본고는 그의 작품의 전체 맥락을 심리분석적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작가에게 지워진 억압 요소와 그 동기가 어디에 있으며, 그에 따른 충동과 불안의 요소를 작가는 어떻게 전이시켜 작품으로 반영시켰는가를 살피는 기회가 되게 할 것이다.

## 2. 모성에 결핍과 양가심리

김우진의 아버지 김성규는 거듭되는 사별로 인하여 모두 5부인은 얻어 그 중 세 부인으로부터 3남 7녀를 낳았다고 한다. 김우진은 둘째 부인 박씨의 소생<sup>3)</sup>으로서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만다. 그 뒤로 3명이나 되는 계모와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그는 자라게 된 것이다.

인간은 모태로부터 이 세계로 분리될 때 최초의 불안감을 겪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원초적인 불안 위에 이른 나이에 어머니와의 사별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애정 결핍감을 형성하며, 성격 형성상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은 김우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그의 자전적인 글에서도 드러나듯 성인이 된 후에도 일종의 심리적인 상처(trauma)로 자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유년 시대의 기억은 대개는 이것스나, 이 구향(舊鄕)의 강심(江心)을 대할 때 우연한 기회에 이전에는 망각의 속에 있던 것이 회상될 때가 만다. (……)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나?” 익진이와 이약이하든 곳 이갓치 물었다.

“안이나요 당초에 물어졌서요. 다만 기억나는 것은 저기 저 강변에

3) 양승국, 『김우진, 그의 삶과 문학』, 태학사, 1998. 51면.

어머니 상여가 지나가는 것을 아모 철업시 이쪽에 서서 촌 아해들과 갖  
치 우스며 바라보든 것뿐이아요”

나는 그때 우연한 기회에 비감(悲感)이 흉리(胸裏)에 충일하여짐을 깨  
달었다. 그 동시에 뜨거운 눈물이 면안(面顔)에 주류(注流)하였다. 석양(夕  
陽)의 공기(空氣)는 부드럽고 바람은 개엇스나, 내의 기억은 돌아가신 어  
머니에게 집중되었다. 한 점의 사랑을 밋지 못한 (그렇게 나는 생각이 든  
다) 나는, 얼굴 기억도 업는 그이의게 이갓치 무극(無極)한 애모(愛母)의  
정이 깊다. 나는 흘르는 눈물 얼굴을 숙였다.<sup>4)</sup>

예문에서 드러나듯 사별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김우진에게 모성  
애 결핍감으로 작용하고, 그의 내면에 일종의 슬픔으로 남겨져 있다. 어  
머니 상실에 대한 작가의 경험은 작중인물들에게 반영되어, 그들의 내면  
에 깊게 각인된 ‘외상성 경험’으로 자리하고 있다.

異腹第 : 난 힘도 물도 養分도 업서요.

詩人 : (冷靜하게) 그게 무슨 소리니? 힘이나 養分이 나는 업다고 하자.  
그래두 어머니의 사랑이 잊지 안허니? 盲目的이라고 하지 마라. 사랑  
에서 힘이 나온다. 사랑은 盲目的이라구 갑업는 것이 아니다.<sup>5)</sup>

...(중략)...

詩人 : 글새 네게는 犧牲이니 무엇이니 問題가 되지 안는다닛가. 이것 봐  
라. 나는 어머니 얼굴도 몰으고 있다. 언제 여름인가. 어머니 生覺하고  
江가에 앉아서 운 일 있지?<sup>6)</sup>

詩人 : 지각업시 경충거리는 강아지 모양으로 江물에다가 침지질하고 놀  
때 江邊가로 어머니 상여차 지나가는 것을 구경거리로 보았을 때, 모

4) 1922년 9월 24일 일기(『전집』 2, 492면).

5) <난파>, 『전집』 1, 90~91면.

6) <난파>, 『전집』 1, 91~92면.

든 運命의 첫 길이 江邊가 나 혼져 안즌 압흐로 열니게 되엿을 때. 하하. (卒地에 크게 웃는다)

<난파>의 시인은 어머니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사별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의 힘<sup>8)</sup>이 된다. 그러나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한 그는 힘이 없다. ‘운명’이라고 언급한 바, 그가 생을 힘있게 살 수 없는 운명은 바로 어머니 상실에서 비롯된다. 즉 시인이 외롭게 홀로 ‘난항을 하지 않으면 안 될’<sup>9)</sup> 운명은 어머니의 사랑을 잃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다.

<산돼지>의 원봉이는 친모가 아닌 영순이의 어머니로부터 자라왔다. 표면적으로는 모성애 결핍보다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을 받는 원봉이다. 그러나 김우진이 계모들 밑에서 자라면서, 그의 친모를 그리워했듯 원봉이도 친어머니를 그리워한다. 그것은 환몽 장면을 통해 암시적으로 나타난다. 극중의 환몽 장면은 원봉이의 존재를 밝혀주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동학군이며, 원봉이를 배 안에 둔 어머니는 동학군의 아내라는 이유로 관의 병졸로부터 폭행을 당한다. 결국 그를 낳고 어머니는 죽음을 맞게 되고 지금의 영순이의 어머니에게서 자라게 된 것이다.

꿈이란 무의식의 세계를 드러낸다. 즉 꿈은 일종의 외현적 사고와 대비되어 깊이 숨겨 있는 잠재적 사고를 엿보게 한다.<sup>10)</sup> 환몽 장면은 어머

7) <난파>, 『전집』 1, 98~99면.

8) 김우진은 일기에서도 자신의 힘이 나약하다는 것을 여러 번 고백하고 있다. 일례로 “도덕적 양심이 나를 구속하기보다 나의 마음을 변민케 한 것은 자기의 힘이 약한 때문이다. 자기의 운명적 견인(牽引)인 것이다. 아아, 나는 힘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해, 눈물이 땀 살과 피가 넘치는 비장한 힘이 필요하다.”(1921년 11월 26일 일기, 『전집』 2, 484면)

9) <난파>, 『전집』 1, 91면.

10) 지그문트 프로이트,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임홍빈·홍혜경 역, 열린책들, 1996. 31면.

니를 잃은 아픈 기억이, 원봉의 무의식 속에 각인된 원초적인 아픔의 요소라는 걸 암암리에 제시해 준다.

舞臺 다시 어두어졌다가 밝어온다. 如前한 場面. 눈과 바람은 개이고  
 明朝한 달빛만 元봉이네 거구려져 있든 그 자리에 그 姿勢대로 元峰이  
 가 드러누어 있다. 呻吟<sup>11)</sup>

병졸에게 배를 채이고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어머니의 자리는 옆 구리를 채이고 아파하는 지금의 원봉이의 자리이다. 표면적으로는 회사에서의 불신임과 영순에 대한 애정, 정숙과의 파탄 등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비롯된 악몽이지만, 잠재적으로는 가장 근원적인 고통인 어머니 상실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친어머니로부터의 분리와 그로 인한 상실감이 원초적인 불안감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음은, 이렇듯 환몽 장면의 마지막 부분에서 특히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원봉이의 현실은 어머니의 죽음의 자리처럼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현재 고통의 근저에는 태어날 때의 불행함이 무의식적인 상흔으로 은폐되어 있는 것이다.

김우진은 자신의 시 속에서 어머니를 ‘꿈의 원천’<sup>12)</sup>이라고 노래한 바 있다. <난파>의 시인이나, <산돼지>의 원봉에게서도 어머니의 존재는 아련한 꿈 속의 기억처럼 잡히지 않는 그리움의 대상이며, 그 상실감은 하나의 상처로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어머니로부터 일찍이 떨어져 나와서 모성애가 결핍되어 있으며, 정신적인 방황은 바로 이에서 비롯된 후유증이나 흔적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성애 결핍은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모성애 회귀본능으로 전이된다. <난파>의 시인은 난파되어 어머니의 품 속에서 안식을 찾고자 한다. 특히나 <산돼지>에 인용된 조명희의 시 <봄 잔디밭 위에서>에서

11) <산돼지>, 『전집』 1, 141면.

12) <아아 무엇을 얻어야 하나>, 『전집』 1, 310면.

는 원봉이의 모성 회귀 본능을 암시적으로 나타낸다.<sup>13)</sup>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머니 품은 바로 봄 잔디밭이다. ‘어린 아기가 어머니 젖가슴 속에 안겨 어릿광함 같이’ 잔디밭에서 짓둥그르는 것은 또 다시 어머니의 품을 발견하려고 하는 꿈을 의미한다. 다시 어린 아이가 될 수 있는 세계를 발견하려는 꿈, 유년시절의 낙원적 존재에 대한 갈망<sup>14)</sup>은 어머니가 있는 총족의 세계인 것이다.

그런데 주인공들의 모성에 갈망이 여성 인물들에 대한 집착으로 전이되고 있음은 주목할만 하다. 즉 인물 구성면에서 남성보다 여성 인물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주인공들의 갈등상은 주로 이들 여성(어머니, 처, 애인 등)과의 관계에서 빚어진다. <두대기 시인의 환멸>에서 원영이는 어머니와 처, 정자와의 대립을, <난파>에서 시인은 어머니(계모들)와 비비(카로노메)와의 사이에서 방황하며, <산폐지>에서 원봉은 어머니와 영순, 정숙 등과의 갈등을 보인다. 프로이트는 문학이나 예술을 ‘욕구 대상 총족의 메카니즘’의 하나로 보았다. 한 예술가가 현실에서 좌절된 욕구를 환상 속에서 대신 총족시킨 것이 바로 예술<sup>15)</sup>이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김우진의 모성에 결핍과 그 회귀본능<sup>16)</sup>에서 비롯된 보상심리가 주인공의 주위에 여성 인물들을 등장시키게끔 작용한 것 같다.

그런데 주인공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애정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다. 즉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양가적이다. <난파>의 시인은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저주한다. 모성에 대한 갈망의 반대편

13) 김종철은 ‘봄’은 여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에서 모성을 상징한다고 보았다(김종철, 「<산폐지> 연구」, 『김우진』, 태학사, 1996. 162면).

14) 에리히 프롬, 『프로이트 사상의 재조명』, 이경식 역, 전망사, 1981. 46면.

15) 지그문트 프로이트, 『창조적인 작가와 몽상』, 정장진 옮김, 열린책들, 1998. 94~95면 참조.

16) 김우진의 시 <어린애만 되었으면>(『전집』 1, 379면)에서도 모성회귀 본능이 잘 드러나 있다.

에는 자신을 두고 떠나가버린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있다. 그래서 그리워하면서도 ‘찢러 죽이고 싶은’ 모(母)이며, ‘어머니 속’에서 나온 비비는 사랑하면서 정작 그 어머니는 저주하는 양가심리를 드러낸다.

詩人 : 어머니 記憶이란 다만 喪輿 떠나는 光景만

異腹第 : 그게 여섯 살 때 아니요? 그런데 왜 얼굴을 記憶 못해요?

詩人 : (압픈 소리로) 낮코 第一 미워하든 아들인데 그 어머니가 엇더케 記憶에 드니?<sup>17)</sup>

어머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그 사랑을 자신에게 채 주지 않고 떠나버린 것에 대한 원망으로 되돌려진다. 모(母)의 대사에서 ‘낫쿠서 제일 미워하든 아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사는 인물의 원망이 어머니에게 역전이(逆轉移)되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현실에서 그 사랑을 주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떠나가버린 어머니라면 자신을 지독히도 미워한 모양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산돼지>에서도 원봉은 어머니와 늘 대립하고 원망하면서도 실제로는 영순보다 자신을 위주로 한 사랑을 원하며 어머니의 애정을 갈구한다.

主 : 아, 날 그것케 미워할 게 뭐니?

元 : 榮順이를 爲主로 해서 날 생각하는 것이 미워요.<sup>18)</sup>

원봉이는 자신의 친모가 아닌 ‘영순이 어머니’인 어머니, 자신보다 영순일 위주로 생각하는 어머니 아닌 어머니를 원망한다. 표면적인 갈등은

17) <난파>, 『전집』 1, 91면.

18) <산돼지>, 『전집』 1, 149면.

영순을 사랑하며, 실제로는 의붓 남매이면서도 친동기로 자라온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이들의 사랑이 용납될 수 없음에서 빚어진다. 그러나 심리의 저변에는 애정 결핍이 갈등의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원봉이와 어머니는 사랑과 미움의 애증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가심리는 주인공이 주위의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담겨 있다. 주로 주인공을 둘러싼 여성들은 상반된 성격의 소유자들인데, <두대기 시인의 환멸>에서 경순은 시부모 모시고 남편 섬기며 아들 낳아 잘 기르는, 그야말로 현모양처적인 구여성이다. 이에 반하여 정자는 독신녀로서 소위 자유분방한 신여성이다. <산돼지>의 영순이가 헌신적이며 정적이라면 정자는 개인적이며 동적이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삼각형 구조에서, 그를 둘러싼 여성들은 서로 대비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런데 주인공들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일관성 없는 파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元 : 여자가 안해 안 될 수 있나? 例外는 빼놓고 말하자. 女子는 누구든지 남의 안해가 된다. 結婚하기 위해서 바느질을 하는 것이 卽 女子되려고 바느질을 하는 것이 아니겠나?<sup>19)</sup>

貞 : (못 들은 척) 내게 와서 婦人問題인지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고 自請한 이가 누구요. 그리고나서는 썩거 夫人이니 엘엔케이니 源치도 아니한 설교를 해가면서.<sup>20)</sup>

<산돼지>의 원봉은 남녀동등을 외치면서도 여자는 아내 되기 위해 바느질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영순이의 구여성적 성향을 진부하다고

19) <산돼지>, 『전집』 1, 161면.

20) <산돼지>, 『전집』 1, 168면.

여기면서도 그것을 좋아하며, 정숙의 신여성적 성향에 끌리다가도 그것을 비판한다. <두대기 시인의 환멸>에서도 원영은 여성의 개화를 부르짖으면서도 아내에게는 문밖 출입도 금지시키며, 구여성인 아내를 핍박하면서 신여성인 정숙을 동경하지만 신여성에 대한 혐오감도 크다.

일반적으로 대조적인 여성상은 구시대의 여성상(보수적·전근대성)·새시대의 여성상(진보적·근대성)이라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구여성과 신여성을 둘 다 비판하면서도 둘 다 수긍하는 이율배반적인 주인공은 바로 근대의 과도기적 지식인상이며 사회상을 드러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비적인 여성상에서 시대상의 표출과 그것의 갈등이라는 표면적 의미 외에 작가가 드러낸 두 여성상<sup>21)</sup>과 그 내면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어머니에 대한 양가감정이 여성들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옮겨갔음을 의미한다. 주인공들은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것처럼 서로 상반된 여성들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한다. 주인공들의 여성에 대한 양가성은 그들의 욕망의 발현이자 그 실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모성에 결핍은 욕망을 형성한다. 결핍된 것을 충족시키려는 심리, 즉 욕망은 어머니를 찾아 나선다. 그 대체물이 바로 여성이다. 하지만 주체의 욕망을 충족시킬 것처럼 보이는 대상, 즉 대체가 가능하리라 믿었던 대상은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않고, 다시 또 다른 대상을 찾게 만든다. 인물들에게 있어서 모성 결핍은 여성들에 대한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결핍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분열된 시선, 어디에도 안주하지 못하는 양가적인 심리는 인물들이 중심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하는 요소로서 작용한다. 이는 <난파>의 시인의 고백처럼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한데서 기인하며, ‘힘’없이 살아갈 운명을 짊어졌음을 의미한다. 극중의 행동상은 이를 반증한다. <난

21) 이것은 처(구여성)와 윤심덕(신여성)에 대한 작가의 시선과도 맞물린다고 하겠다.

파>의 시인이거나, <두데기 시인의 환멸>에서 원영, <산돼지>의 원봉은 대개가 외부 세계에 대한 불만은 많으나 장애를 극복하는 인물이 되지 못한다. 그들은 지식인에 해당되지만 자기 비하감에 빠져 있고, 행동에 있어서 우유부단하며, 늘 내적 방황을 하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그 예로서 <난파>의 시인은 ‘장미한 것을 구하나 가질 수 없고, 용기를 신앙하지만 힘이 허락치 않으며, 행복을 싫어하면서도 행복을 미워하지 못하고, 비열을 행하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미워하고, 희생을 미워하면서 그것을 행하고, 쾌락을 좋아하면서도 멀리하며, 현실이 달 것 같아도 먹을 줄 모르며, 명예를 귀히 여기면서도 얻을 줄을 모르며, 악착스러운 것에 정면하지 못하면서 해 보고 싶은’<sup>22)</sup> 인물이다. <산돼지>의 원봉도 내적 갈등 속에서 행동력이 미약한 인물이다. 회(會)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그것과 싸워 해결하기보다 피하려고 하며, 정숙과의 관계에서도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저 불만과 갈등 속에서 자책하는 인물이다. <두데기 시인의 환멸>에서 원영은 정숙을 통해 자신의 부조리함을 지적당하면서도 그 문제점에 대한 대응보다는 냉소적인 자기 방기의 태도를 보인다.

이렇듯 대상을 바라보는 주인공들의 시선은 양가성을 띠거나, 욕망하지만 갖고자 하는 행동이 없거나, 또는 그것을 취할만한 힘이 없거나 피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주인공들은 늘 대상과 거리를 두고 있으며, 이에서 불만감은 결코 해소되지 못한다. 인물들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이러한 상태를 ‘중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榮 : 아, 옴빠! 괴로워! 아 옴빠! 나하고 저리로 올너가요. 아 괴로워! 여귀  
 는 다 올나가지 안코 中間이기 때문에 이리케 괴로운 것 안이여요!  
 九萬里長天 저 우에까지 갓치 올너가요. 내 손 잡버줘요! 내가 끌어  
 올널테니!

22) <난파>, 『전집』 1, 75~76면 참조.

元 : 내 몸이 이렇케 무거운대 엇떡케 연약한 네가 날 꼬집어 올니나? 山  
돼지는 땅 우에서 박게 못 큰단다<sup>23)</sup>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원봉의 무능력은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중간에서 있기 때문이다. 중간이라는 것은 이상과 현실 사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적인 삶을 원하지만 그곳을 오를만한 힘은 없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면 가슴 속의 이상의 갈구가 그것마저 방해한다. <난파>에서도 시인은 세상이란 군두 뛰는 것에 불과하며, “올으거나 내리거나, 죽거나 살거나, 죽지 안쿠 살려면 한 번 튼튼하게 씩씩하게 日光처럼 밝게”<sup>24)</sup> 살아가고 싶어한다. 그렇게 뛰다가 죽기를 원한다. 그러나 중간에 머물러 있다. 원봉이나 시인은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중간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결과, 모성애를 충분히 받고 자란 인물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생각에 자신감에 차 있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이 생각으로 인해 평생동안 정복자의 감정 상태를 갖고 있게 된다. 이 감정은 성공에 대한 확신이기도 한데, 실제로 이런 감정이 성공을 가져오는 경우가 드문 것은 아니다.<sup>25)</sup>

이에 따른다면 김우진, 그리고 그를 투사한 작중 인물들이 삶에 있어서 패배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모성애를 충분히 받고 자라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모성애 결핍에 따른

23) <산태지>, 『전집』 1, 144면.

24) <난파>, 『전집』 1, 86면.

25) 지그문트 프로이트(1998), 앞의 책, 43면.

양가심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심리적 불안으로 고착되고, 그들이 불안정한 삶을 사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주인공 중심으로 모성에 결핍과 양가심리의 형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주인공들은 대개 어머니를 일찍 사별하여 모성에 대한 그리움이 강하고, 그것의 보상심리가 여성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신을 방기시킨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인물의 내면에 자리하여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어머니라는 양가적인 심리를 낳게 한다. 그것은 주위를 둘러싼 여성들에게도 투사되는데, 서로 상반된 여성에 대한 집착과 증오로 나타난다. 이는 고착된 성격으로 형성되어 어디에도 안주하지 못하는 중간지대의 불안정한 인물들이 되게 한다. 이러한 인물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작가 김우진의 개인적 경험이자 내적 실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도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자살로 생을 마감한 불안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김우진의 작품에는 어머니 부재라는 그들이 지배적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에서 비롯된 불안한 인간이 문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 3. 아버지 콤플렉스와 자기혐오

김우진의 글들을 보면, 희곡에서 뿐 아니라 시,<sup>26)</sup> 한시,<sup>27)</sup> 일기 등에서

26) “유학(遊學)의 몸이 된 때가 있어/ 꿈은 고향으로 달려가건만/ 꿈의 원천인 어머니를 위해선/ 어떤 꽃을 가지게 할까/ 늙으신 아버지는 어디에/ 안식의 지붕을 세워야 하나/ 아아, 무엇을 얻어야 하나”(〈아아 무엇을 얻어야 하나〉, 『전집』 1, 310면)

27) “푸른 파도 외로운 배에 기대어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니/ 삼라만상(森羅萬象) 모두가 하늘이 만든 것/ 아버지의 뜻 이룰 것 마음에 새겨 두니/ 일찍 충효 소리 듣고 신선 세계에서 일어났네.”(〈우진(祐鎭)의 차운시〉, 『전집』 1, 399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만큼 아버지에 대한 염려, 기대에 대한 책임감, 억압에 대한 반항 등의 심리들이 드러나 있다.

특히나 아버지의 기대와 그에 대한 자신의 책무는 상당한 억압감으로 다가온 듯 하다.

아버이의 목소리 —

나는 유교의 지지자다. 가정이란 것이 있다. 선조(先祖)라는 것이 있다. 가족이라는 것이 있다. 너는 장남이다! ‘달효(達孝)’ 외에 장남으로서 너에게 무슨 이상(理想)이 있느냐.<sup>28)</sup>

아버지의 이 뜻을 계승하면, 이 새로운 공기의 아들은 질식할 수 밖에 없다. 계승치 않으면 “그때에 내가 눈을 감고 돌아가리라”라는 눈물겨운 탄원을 어찌하는가. 더구나 이 탄원에 대한 한 가지 내 약점은 이것을 분쇄할 만한 힘이 모자란 것은 아닌가. 오, 아버지여. 당신은 비극적 운명의 주인공이요. 당신으로 하여금 비극의 주인공을 벗어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의 개성과 자아를 태워버려야만 하오.<sup>29)</sup>

그에게는 장남으로서 ‘효’에 이르고, 가족과 가정을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하는 유교적 도리가 있다. 이것은 아버지가 부과한 책무이자 사회적 도리이다. 앞서 어머니 애정을 갈구하는 자아가 개인적 자아의 욕구라면, 아버지로부터 부과된 유교적 도리는 외부로부터 부과된 사회적 자아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초자아(super-ego)는 주로 아이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일종의 양심으로 기능하면서 자아가 원초적인 충동을 충족시키려 할 때 자아의 사고와 행위를 비판하고, 죄의식과 불안을 불

28) 1923년 8월 30일 일기(『전집』 2, 502면).

29) 1922년 12월 4일 일기(『전집』 2, 496면).

러 일으키는 심리기제<sup>30)</sup>이다. 자아의 도덕적 규범을 형성시키고, 사회적 자아로서 존재하는데 초자아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우진에게 있어서도 아버지 의식은 초자아의 심리로서 하나의 억압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아버지 김성규는 ‘정력적인 천재’<sup>31)</sup>이자 사회개혁의 포부를 가진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아들에 대한 그의 기대치는 자신의 삶의 형태에 기준한 것이었고, ‘참 나의 존재’만을 중시하려는 김우진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하나의 억압적인 존재였을 것이다. 그래서 ‘일개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속박의 존재이자 원망의 대상이 된다.

작품에서도 이는 같은 양상으로 드러난다. <난파>의 시인이나 <산돼지>의 원봉은 작가의 분신으로서 가족 내에서 장자로서의 도리와 사회에 있어서 충군보국의 책무를 짊어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는 아버지의 엄명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다.

父 : 그것소 아들이, 내 가슴 속을 알어다우. 나는 忠君報國도 못한 罪人  
인대 어머니에게 철천지한을 먹음게 한 不孝子로구나. 忠君報國, 요새  
말로 社會 奉仕할 有爲之人은 너 外에 오늘 다른 靑年들 中에서두, 또  
는 우리 子孫 中에서두 잇겠지만 오늘 너는 내 아들 怨恨 먹음은 네  
할머니의 손자가 아니니?

神主 : 아들이. 손자야. 너의들은 다만 아들 노릇, 孫子 노릇이 첫 義務  
다.<sup>32)</sup>

부의식은 시인에게 있어서 아들 노릇, 손자 노릇, 사회봉사자를 강요하는 사회의식이다. 시인이 시인되기 원하는 것은 일종의 개인의식이다. 아버지가 부과한 사회적 책무와 자신이 원하는 개인적 욕망 사이에는 괴리

30) 데이비드 스테포드 클라크, 『한권으로 읽는 프로이트』, 최창호 옮김, 푸른숲, 1997. 271면.

31) <A Protesto>, 『전집』 2, 424면.

32) <난파>, 『전집』 1, 78~79면.

가 있다. 여기에서도 아버지 의식과 어머니 의식은 서로 상반적임을 알 수 있다. 부성과 대비되어 모성은 인물들의 개인의식을 그대로 인정하게끔 인식시켜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母: 죽은 네兄들이 얼마나 너를 보구 수워 하겠니! 그렇지만 너는 너다. 언제까지든지 너다. 너가 되어야 한다. 죽든지 살든지 간에 네가 네 눈을 떠야 한다.<sup>33)</sup>

그러나 시인에게 있어서 개인적 자아, 즉 ‘개성’을 인정하는 어머니는 현실에서 죽은 자요 사회적 자아를 강요하는 아버지는 현실에서 그를 억압하는 존재이다. 그가 그로써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현실은 부재한 것이다.

<산돼지>에서 동학당인 아버지도 원봉에게 자신이 다 이루지 못한 뜻을 이룰 것을 엄명한다.

元:...(생략)... 나는 어머니 만큼이나 아버지도 원망이오 아버지도! 自己는 東學인가 무엇에 들어가지고 나라를 爲해, 衆生을 위해, 百姓을 위해, 社會를 爲해, 죽었다지만 結局은 집안이다 山돼지 한 마리 가두어 놔코 만 셈이야 半白이 된 머리털이 핏줄기 선 부릅뜬 눈 우에 헛트러져 가지고 이를 악물고서는 대드는구려, 「이놈 네가 내 뜻을 바더 兩班놈들 貪官汚吏들 썩어가는 선배놈들 모도 잡아죽이고 내 平生 所願이든 내 원수를 감지 안으면..... 흐흐흐 山돼지 탈을 벗겨주지 안 켜다.」고!<sup>34)</sup>

아버지가 부과한 책무는 일종의 강요이며 위협이다. 엄명을 지키지 못

33) <난파>, 『전집』 1, 82~83면.

34) <산돼지>, 『전집』 1, 125~126면.

했을 때는 산돼지 탈을 벗겨주지 않겠다고 한다. 이러한 명령은 내면화 되어 자아를 감시하는 초자아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를 끊임없이 억압하는 요소가 된다.

그런데 인물들은 아버지의 억압을 인식하며 벗어나고자 하면서도, 그에 대한 존경과 순종의 마음으로 인해 아버지를 온전히 거부하지도 못한다. 실제로 그들의 내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버지의 명을 실현하기에 자신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책감이 더 강하다. 현실에 맞서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에 자포자기에 빠지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인과율’에 얽힌 ‘투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 나약한 자신에 대한 회의는 아버지를 억압적으로 부각시키게 하고, 그래서 차라리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지켜야 할 도리, 즉 사회의식에 대한 부정으로 귀착된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김우진이 상극적 모티프를 주로 사용했고, 이것은 작가의 근대적인 자아가 봉건적인 가족관계를 부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였다.<sup>35)</sup> 그러나 단순히 봉건 인습에 대한 반기를 들려고 그런 모티프를 쓴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작가의 내부에서 아버지만큼 되지 못하고, 될 수도 없다는 자괴감이 오히려 자포자기로 작용하였고, 역설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으로 작중 인물들에게 투영된 것이라 하겠다.

실제 작품을 보면, <난파>의 시인에게는 ‘양반가족’, 「신라성족의 후예」라는 자만<sup>36)</sup>이 있다. ‘자만’이라는 것은 시인이 시인되기를 갈망하면서도 인과율의 예속에 만족한다는 아이러니함을 낳는다. 심지어 <난파>의 시인은 뛰다가 죽을지언정 아버지와의 거리를 좁히려 한다.

父 : 그러니까 네 애비 얼굴을 좀 자세히 되려다 보렴.

詩人 : 난 저런 「新羅 聖族의 後裔」가 되려면 적어도 七八十年 前에 잇

35) 유민영, 「서구예의 탐닉과 자기파열」, 앞의 책, 43면 참조.

36) <난파>, 『전집』 1, 77면.

어야 합니다. 그이가 선 길과 내가 선 길 사이에는 太平洋이 있습니다. 엇더케 넘어 뚝니까. 아 그러나 어머니, 나는 뛰다가 죽기를 願하오 그런데 當初에 눈 아피 안 보이는 것을 엇더케요.<sup>37)</sup>

그러나 그에게는 그럴만한 힘이 없다. 아버지는 ‘남보다 더한 정력, 재능, 천재, 통찰력을 가지고 사나운 풍우 속을 거러온’<sup>38)</sup> 인물로서 현실과 맞서 적극적으로 살아온 ‘성공자’요, 시인은 ‘때의 관절이 위골이 된’<sup>39)</sup> ‘무능력’자며, 현실을 두려워 하고, 인과율로부터 도피하려는 소극적 인물이다. 시인 스스로 토로한 바,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의 힘이고 그것을 받지 못한 자신은 힘이 없는 것이다.<sup>40)</sup> 여기에서 그는 ‘양반’도 ‘신라성’도 될 수 없는 불완전한 자이기에 자신에 대한 회의도 크다.

詩人 : (소리를 버럭질느며) 난 어머니를 辱하오 誚呪하오. 이 人間을 왜 이 모양으로 맨드러 냐소 當初에 고만 두든지 그랬차면 어엿부게 곱게 喜處 없게 모든 것에 꼭 드러맞도록 맨들어 보지. 그러구도 어머니라 하오.<sup>41)</sup>

詩人 : 난 실예요. 무서워요. 곳 무서워 못 견대겟서요. 왜 싸우라면서, 現實을 보라면서, 이럿케 不完全하게 날 맨들어 줬소!<sup>42)</sup>

<산돼지>의 원봉에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아버지는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인물이다. 아버지가 일개인보다 한 사회를 위

37) <난파>, 『전집』 1, 82면.

38) <난파>, 『전집』 1, 79면.

39) <난파>, 『전집』 1, 79면.

40) “詩人 : (가슴이 터질 듯한 소리로 그러나 歡喜에 못 익이는 듯이) 아 내게 힘만 줘시오. 힘만. 모든 것을 征服식힐!”(<난파>, 『전집』 1, 80면).

41) <난파>, 『전집』 1, 72면.

42) <난파>, 『전집』 1, 74면.

해 적극적인 행동력을 보였다면, 그와 달리 원봉이는 회사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맞서 싸워보려고 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애정 문제에 있어서조차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무능한 자신에게 아버지는 사회와 민족을 위해 싸우라는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원봉 : ...〈생략〉... 저승에 들어가서라도 그 산돼지 탈이 버너지지 안케 얼굴에다가 못박어두겠다고 대어들면서 부젓가락만한 왜뭇에다가 주먹만한 鐵槌를 가지고 땀버드는구려! 아버지 뜻을 바다 社會를 위해 民族을 爲해 원수 잡고 反逆하라고 가리쳐 주면서도 산돼지를 못나니만 뒤글는 집안에다가 모라넛코 자바매어 두는구려. 울 안에다가 집어넛코 구정물도 변변히 주지 안으면서! 호호호호호! 산돼지 산돼지 산돼지! 자 이 산돼지 얼굴 좀 디려다 보구려! (房으로 쫓쳐 드러간다)<sup>43)</sup>

여기에서 ‘집 안’에 있는 ‘산돼지’란 행동력이 결여된 자아,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있는 길 잃은 자아를 상징한다. 아버지의 명은 주어졌지만 원봉에게는 그 명령을 실현할만한 능력이 없다. 원봉은 스스로도 혐오스러운 ‘산돼지 탈’을 평생 짊어져야 할 운명이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크며, 자신에게 산돼지 탈을 씌워준 아버지가 원망스럽기까지 한 것이다.

프로이트는 어머니의 억압이 없을 때는 ‘소극성’과 ‘의존성’이 강해지고, 아버지의 억압이 없으면 ‘대담성’과 ‘독립성’이 강해진다는 정신분석의 결과를 말한 바 있다.<sup>44)</sup> 작품의 인물들에게서 볼 수 있는 성향이 바로 이에 상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인이나 원봉 등은 어머니가 없으며

43) <산돼지>, 『전집』 1, 125~126면.

44) 지그문트 프로이트, 『예술과 정신분석』, 정장진 옮김, 열린책들, 1997. 106~107면 참조.

로 그 억압이 부재하며, 아버지의 기대치가 강하므로 그 억압 속에 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소극적이며 의존적이고, 대담성과 독립성은 부족하다. 그러므로 인물들은 현실과 싸우려는 유명(遺命)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실현해낼 만한 능력이 부재하기에, 인생의 바다에서 난항을 할 수 밖에 없는<sup>45)</sup> 것이다.

본고의 서론에서 밝힌 바, 작품은 작가의 내면을 투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우진에게 있어서도 아버지는 거부의 대상이자 무릎꿇고 싶은 존경의 대상이다.<sup>46)</sup>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충실한 아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글들에서 아버지와 같은 정력적인 인물이 될 수 없다는 자괴감을 읽을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개성’을 운운하며, 아버지가 자신에게 거는 기대보다 개인적인 자아를 찾음이 더 중시된 듯 하지만, 실제로 그의 내면에는 아버지를 따라갈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자포자기의 자리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아버지 부정의 역설적인 심리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날 것혼 것은 아버지 것혼 정력 잇는 천재와는 인연이 멀다. 이렇케 인연이 먼 새이에 부자(父子)가 된 것이 숙명이지. 그러지만 할 수 잇나? 나는 내 속 생활의 힘이 잇다. 이것만이 문제거리다. 알갯나!<sup>47)</sup>

다소 냉소적인 어투이긴 하나, 그의 표현의 이면에는 아버지가 원하는 바의 사회적 책무들은 보다 우월한 것, 즉 천재의 정력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곳에 이를 수 없는 자신의 한계가 아버지와의 인연을 멀게 한다. 그가 언급한 바, 내면에서 일어나는 ‘속 생활’, 즉 개인적인 욕망들은 그에 비하면 열등하지만 어쩔 수 없는 자기 한계에서 그것

45) <난파>, 『전집』 1, 90~91면.

46) <출가>, 『전집』 1, 432면.

47) <A Protesto>, 『전집』 2, 424면.

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성’과 ‘윤리’ 사이에서의 갈등, 즉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 사이에서 갈등한다.

나에게는 신(神)과 양친,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린다. 내게 개성보다도 인조(人造) 도덕이나 윤리가 강한 발전을 해버린다면 양친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더욱이 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강한 개성이 있다면 부차적 관계로부터 날아 떠날 뿐이다. 오, 힘이여, 내게 있어라! 전자는 평화이고 행복이고 존경의 기대이다. 후자는 반역이고 투쟁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난이다. 오, 이 몸에 힘 있으라!<sup>48)</sup>

그의 고백에 의하면 개성을 취할 때는 ‘평화와 행복’이, 윤리에 귀 기울이면 ‘반역과 투쟁’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는 신의 소리, 즉 자연스러운 인간 본연의 욕구이며, 후자는 아버지의 소리, 즉 도덕과 윤리의 규제이기도 하다. 김우진은 <난파>에서 시인의 대사를 통해 말했듯이 쾌락을 원하면서도 감히 그것을 멀리하며, 명예를 귀히 여기면서도 얻을 줄을 모른다. 그러므로 힘있게 삶을 살아갈 만한 그 무엇도 없는 그는 늘 ‘중간’에 서서 갈등과 자책에 빠진 것이다. 작가의 이러한 딜레마가 작중 인물들에게도 그대로 투사되어 나타난 것이다.

지금까지 아버지 콤플렉스와 자기혐오의 심리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인물들의 내면에는 두가지 서로 상반되는 정서적 욕동들, 즉 아버지를 향한 적대감과 애정어린 존경의 욕동들이 함께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작품에서 아버지는 원망의 대상이기보다 따라갈 수 없는 질투의 대상이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의 아들이기를 포기하고 싶은 것으로 그려져 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양의성을 띤다. 아버지처럼 되고싶다는 소원과 아버지를 경쟁자로 여기

48) 1923년 8월 30일 일기(『전집』 2, 502면).

며 제거하도록 부추기는 증오가 함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태도, 즉 아버지의 자리에 있고 싶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찬미해서 아버지처럼 되고 싶기 때문이며 동시에 아버지를 멀리 떼어 놓고 싶은 것은 그의 억압을 피하고자 함에 있다.<sup>49)</sup> <난파>의 시인이나 <산돼지>의 원봉 등도 아버지에게 대한 존경심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행했던 일들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실현해내지도, 극복하지도 못하는 나약한 인물들이다. 존경의 대상인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은 내재화된 초자아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여기에서 심리적인 불안감이 형성된다. 이 불안감은 사회적 또는 ‘도덕적 불안’<sup>50)</sup>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덕적 불안은 일종의 사회로부터 부과된 윤리의식으로서 초자아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 생기는 심리적인 불안감<sup>51)</sup>이다. 또한 이 불안감은 인물들의 내면에 자기혐오의 심리로 귀착된다. 결과적으로 작품에 나타난 아버지 콤플렉스와 자기혐오는 사회성과 연관된 인물들의 내적 갈등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4. 불안과 자살의 심리

프로이트에 따르면 총체적 의식(mind)은 이드(id), 자아(ego), 초자아(super ego)로 구성되어 있다. 이드는 본능적인 충동을 채우고자 하며 에로스와 파괴적인 본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반하여 초자아는 이상을 지향하

49) 지그문트 프로이트(1998). 앞의 책, 163~164면 참조.

50) 프로이트에 의하면 자아가 초자아의 명령을 어겼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거세에 대한 공포’라고 한다. 이러한 공포는 사회적 또는 ‘도덕적 불안’으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지그문트 프로이트, 『억압, 증후 그리고 불안』, 황보석 옮김, 열린책들, 1997. 268면 참조).

51) 지그문트 프로이트(1997), 앞의 책, 235면.

며 욕구의 내용을 검열하고, 그 만족을 제한하며 금지시키는 심리 기제이다.<sup>52)</sup> 여기에서 자아는 현실원칙에 의거하여 이드의 요구와 초자아의 요구를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매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자아가 연약할 때는 불안감이 형성된다고 한다.<sup>53)</sup> 이드에게서는 본능적 충동을, 초자아에게서는 명령과 금지를 받는 데다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무의식적 노력조차도 검열 당하는 억압 속에서 자아가 현실적인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54)</sup>

이런 측면에서 <두테기 시인의 환멸>에서 원영, <난파>에서의 시인, <산돼지>에서 원봉 등은 자아가 극도로 연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현실적인 적응을 위한 자아보다 모성에 갈망(에로스)의 이드적인 욕망이 더 강하고, 현실적인 추진력을 행하는 자아보다 아버지 의식으로 드러난 억압과 규제의 초자아가 너무 강하다. 자아가 그 힘을 잃으면 성격은 과탄화되고 현실적인 감각을 잃게 된다. 인물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너무 본능적이거나 너무 이상적인 정반대의 심리가 내면에서 서로 부딪치고, 그것을 자아는 조정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주인공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지대에서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

<난파>는 비현실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한 왜곡된 자아가 표출되는 데,<sup>55)</sup> 시인의 대조된 대사<sup>56)</sup>는 양가성을 드러내는 증후의 이중성이자 어디에도 안주하지 못하는 불안심리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산돼지>에서의 환몽 장면 등에서 비추어지는 주인공의 모습은 심리적 불안의 징후를 강하게 드러낸다. 시인의 비현실성이나 원봉의 환상은 현실에 대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으로서 신경증적인 불안감이 형성된 결과이다.<sup>57)</sup>

52) 지그문트 프로이트(1996), 앞의 책, 85~88면 참조.

53) 데이비드 스탠포드 클라크(1997), 앞의 책, 161면.

54) 데이비드 스탠포드 클라크(1997), 앞의 책, 198면.

55) 표현주의를 표방한 극으로 의도적이라고는 하나 여기에서는 사조적 측면은 논외로 한다.

56) <난파>, 『전집』 1, 75~76면 참조.

그리고 삶의 중심을 잃은 등장인물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도 강하다. 즉 자학적인 특징을 공통적으로 드러낸다. 자학적인 심리는 일종의 파괴본능으로서 자기를 벌하는 양심인데, 초자아로부터 부과된 ‘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물들의 자학성은 바로 아버지의 유명을 지켜내지 못한 것, 즉 초자아의 명령을 실행하지 못한 데서 온 자기 처벌의 심리이다.<sup>58)</sup> 다시 말해 아버지처럼 되어야 하는 자신이 그것에 미치지 못함에서 갈등이 심화되어 자학성까지 띠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김우진 작품의 인물들을 자아를 찾으려는 인물들로 보고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는 초자아를 실현하려는데 그것에 이르지 못하는 데서 갈등을 겪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태도는 인물의 내면에 자리한 어머니에 대한 양가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형성된 양가심리는 의무와 본능 사이에서도 온전히 그 어느 것에도 충실하지 못하게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적인 견지에서 보면, 대개 어머니의 애정을 많이 받고 자랐을 경우에는 ‘가학적 특징’이 강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을 경우에는 ‘자학적’ 특징이 강하다<sup>59)</sup>고 한다. 어머니의 애정이 결핍되고 주로 아버지의 기대 속에 자란 김우진의 전기적 사실은 바로 작품 속의 인물에게도 투영되어 주로 자기혐오의 자학적인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sup>60)</sup> 극중 인물들의 자학성은 중국엔 죽음의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자학적인 심리는 일종의 자기파괴의 심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귀결이기도 하다.

57) 켈빈 S. 홀, 『프로이드 심리학』, 백상창 역, 문예출판사, 1993. 94면.

58) 에리히 프롬(1981), 앞의 책, 175~176면.

59) 지그문트 프로이트(1997), 앞의 책, 106~107면.

60) 작품에서 부분적으로 가학적 충동을 엿볼 수도 있다. <산파지>에서 원봉의 영순과 정숙에 대한 분풀이, <난파>에서 시인의 어머니를 향한 공격적 태도 등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전반적인 성향은 바로 자학적인 충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자학성은 자아가 속죄를 하거나 스스로를 처벌함으로써 죄악감에 대한 인식을 피하고자 할 때 형성되는 증상이다.’(지그문트 프로이트(1997), 앞의 책, 255면 참조).

詩人 : 어머니, 나는, 당신(當身) 품 속으로 드러가기를 원(願)합니다. 죄다  
내버리고 영원한 침묵 속으로

母 : 날 질이지도 못하고 벌써 氣運이 다했니? 내가 었더케 할 수가 있서  
야지. 너 아버지의게 무리 보렴. (詩人 할 수 업는 듯. 그러다가 고만  
목 매이려고 허리띠를 나무가지에 건다.) 네 손으로 決算 붓칠 수 있  
거든 해 보렴<sup>61)</sup>

어머니는 바로 ‘영원한 침묵’, 즉 죽음이다. <난파>에서 시인은 결국 난파된다. ‘난파’는 ‘어머니의 품 속으로 뛰어듦’이며<sup>62)</sup>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 그가 현실에서 존재하려면 바로 어머니를 ‘찌르고’ 어머니를 극복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품을 선택했다. 그리고 비로소 안식을 얻는다.

詩人 : 難破란 것이 이럿케 幸福이 됩닛가?

母 : 너 아버지 안 보겠니? 네 繼母들을? 네 동생들을?

詩人 : (밋치며) 불에 물애요. 날 혼져 빠지게 해 주. 아 難破란 것이 이럿  
케 幸福이 됩닛가? 難破란 것이 이럿케 幸福이 됩닛가?<sup>63)</sup>

시인을 괴롭게 했던 운명과 이상,<sup>64)</sup> 즉 어머니에 의한 ‘운명’과 아버지  
에 의한 ‘이상’ 사이에서 방황하던 시인은 죽음을 통하여 비로소 ‘이연(離  
緣)’을 할 수 있게 되며, 행복을 얻게 된다.

<산돼지>에서도 ‘봄잔디 밭’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원봉은  
어린 아이가 되어 어머니의 품 속에서 뛰노는 환상 속에서 평화를 얻는  
다. 원봉이가 현실을 피하여 도피할 수 있는 곳, 비로소 안주할 수 있는

61) <난파>, 『전집』 2, 82면.

62) 양승국(1998), 앞의 책, 168면.

63) <난파>, 『전집』 1, 100면.

64) <난파>, 『전집』 1, 87면.

곳은 어머니의 품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지상과 별리한 죽음의 세계에 속해 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 욕망의 드러냄이다.

이렇듯 시인이나 원봉의 행동에서 자살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자아에게 있어 죽음의 증후는 환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학적 충족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내면에 형성된 초자아의 처벌과도 연과된다.<sup>65)</sup> 어머니의 애정이 결핍됨으로써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물들, 그런데 부과된 책무들이 그들을 압박한다. 그들 자신도 아버지처럼 그 책무를 잘 해내고 싶지만 스스로가 그 그릇이 되지 못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속박하는 초자아의 질책을 견딜 수가 없다. 그러므로 차라리 사회적 자아를 버리고 개인적 자아만으로도 인정받았던 어머니의 품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것이며, 그것은 중국엔 시인의 난파요, 어린 시절의 봄잔디밭이다.<sup>66)</sup>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죽음이며 그들의 안식처이기도 한 것이다.<sup>67)</sup>

그런데 모성 회귀 본능은 일종의 퇴행현상으로 지적되기도 한다.<sup>68)</sup> 성년의 세계에서 잃어진 무거운 책무들을 버리고 싶은 심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sup>69)</sup> 현실의 무게가 가벼웠던 어린 시절은 책임보다는 보호가, 불안보다는 품속의 아늑함이 있던 때이다. 개인적인 자아가 인정받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성인으로서의 현실은 아들로써, 손자로서의 책무가 있고, 개인적 자아보다 사회적 자아가 앞서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선 개인적 자아가 강하고 사회적인 자아는 미성숙하다. 여기에 분열과 불안이 있다. 그러므로 완전히 그로서 인정을 받았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65) 지그문트 프로이트(1998), 앞의 책, 167면.

66) 김종철(1996)도 '봄'을 여성성(어머니)으로 보고, 작품의 내적 구조에서 동학으로 표상된 父(남성)와 대립적 구조를 형성한다고 보았다(김종철(1996), 앞의 책, 162~163면 참조).

67) 죽음의 본능(thanatos)은 태어나기 이전의 무(無)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본성으로서 일종의 퇴행현상이기도 하다(지그문트 프로이트(1997), 앞의 책, 205면 참조).

68) 신용남, 「김우진 희곡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82. 58면.

69) S.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입문』, 서석연 역, 범우사, 1992. 37면.

고 싶은 것이다. 낙원과 같던 어린 시절로 돌아감으로써 현실의 외적곤란을 피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작가 김우진의 시에서도 모성 회귀 본능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갈사룩 갈사룩/ 곳치지 못할 傷處에/ 눈물이 나오는구려//  
 건드다 못해 울어 보오만/ 이건 또 왜 이리 속속까지/ 불명이 든 것처럼 뜨겁습닛가//  
 내가 萬一 어린애만 되엇드면/ 가슴이 압퍼서 운다고/ 어머니가 醫師를 부를테지만/  
 내가 萬一 어린애만 되얏드면/ 속 탄다고 어머니가/ 冷水라도 갖다 줄테지만//  
 萬一 내가 어린애만 되엇드면/ 病 들엇다고/ 하로밤만 便히 자고 나면 고만이겠지만//  
 어린애가 아닌 나이기 때문에/ 이 傷處는/ 漸漸 깊퍼 갑니다 그러//  
 오, 내가 어린애만 되엇드면!70)

이 시에서도 현실의 무게를 감당치 못하는 성인으로서의 압박감이 나타나 있다. 그 무게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심리가 어머니에게로 되돌아가 고픈 간절함으로 드러난다. 어머니가 죽음의 세계에 속해 있다면 결국은 죽음, 곧 무(無)로서의 퇴행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볼 때, 김우진의 자살은 충동적인 정사(情死)라기보다는, 그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잠재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프로이트는 예술가는 일반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왕성한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았다. 그는 현실로부터 방향을 돌려 공상 속에서 욕구를 충족시키며, 그것을 작품으로 승화시킨다. 작가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70) <어린애가 되엇드면>, 『전집』 1, 379~380면.

신경증적인 현실도피를 면할 수 있다고 한다.<sup>71)</sup> 김우진이 자살로서 생을 마감한 것과 작중 인물을 통한 이러한 죽음의식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닐 것이다. 자살 이전부터 그의 내면엔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 충동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러한 내적 충동을 인물들을 통하여 실현시키면서 죽음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다.

허구의 세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였던 생명의 복수성(復數性)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동일시하였던 허구의 주인공과 함께 죽는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살아 남아 또 다른 주인공과 다시금 안전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sup>72)</sup>

김우진은 허구 세계 속의 인물들을 죽게 함으로써 대리만족을 얻었고,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지연시킨 듯 하다. 그러나 결국 그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죽음의 본능은 대체물에 만족할 수 없었고, 결국 자살로 귀결되었던 것은 아닐까 싶다. 그의 분신인 인물들이 어머니의 품으로 갔듯이, 모성애에 대한 갈망과 아버지 억압으로부터의 도피심리가 그를 죽음으로 이끈 것이다.<sup>73)</sup> 그리고 그것만이 자신을 구원<sup>74)</sup>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sup>75)</sup>

이상 불안과 자살의 심리를 살펴보았다. 불안심리는 외부나 내적인 억압에서 비롯되거나, 어떤 대상의 상실 혹은 분리됨에서 형성된다.<sup>76)</sup> 작중

71) 지그문트 프로이트(1998), 앞의 책, 95면 참조

72) 지그문트 프로이트, 『문명 속의 불안』, 김석희 옮김, 열린책들, 1997. 60면.

73) 그의 유서에도 쓰여 있지만 죽음은 바로 '어머니 계신 곳'을 의미한다.

74) "오 죽엄의 나라/ 죽엄의 나라/ 그 뒤엔/ 참으로 永遠한/ 安息의 나라가 있을 것 같구나."(<죽엄>, 『전집』 2, 372면).

75) <산폐지>에서 마지막 장면은 <봄 잔디밭 위에서>를 암송하는 원봉의 평화로운 모습으로 되어 있다. 이 작품의 탈고 직후에 자살한 김우진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은 아닌지. 어머니의 아늑한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죽음이기 때문이다.

인물들은 모성에 결핍(이드와 자아의 갈등, 아버지 억압(자아와 초자아의 갈등) 등 상실(결핍)과 억압 속에서 불안한 인물들이다. 다시 말해 극중 인물들의 불안정한 심리의 저변에는 모성에 결핍으로부터 비롯된 원초적인 불안감,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의 괴리에서 온 불안감이 이중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에 따른 내적갈등이 심화되어 자기파괴의 죽음의 식<sup>77)</sup>이 팽배한 자들이다. 또한 작품의 불안과 죽음의식은 김우진의 불안과 자살의 심리를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 5. 심리적 투사물로서의 작품

문학작품에서는 작가들마다 선호하는 인물, 즉 동일한 유형의 인물이 있게 마련이다. 그 인물은 작가의 체험에서 비롯된 익숙함에서 자연스럽게 그려진 경우이거나, 지향하는 인물상, 부정하는 인물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심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한 작가의 작품은 대개 어느 경우이든 간에 작가의 모습을 투영한(일종의 나르시시즘적 요소) 경우가 많다.

앞서도 밝혔지만, 프로이트에 따르면 작품이 초기작일 경우에는 억제되지 않은 무의식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나 어린 시절의 기억과 연관된 결핍과 욕망은, 작중인물 속에 강박적으로 투사된다고 한다. 즉 문학작품들은 어린 시절의 환상과 콤플렉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작가는 자신의 환상(작품)에 의지함으로써 현실에서

76) 지그문트 프로이트(1997), 앞의 책, 120면.

77) 에밀 뒤르켐은 '불안으로 인한 자살'(anxiety-suicide)을 '강박증 자살'(obsessive suicide)이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죽음의 관념이 고착되면서 끊임없이 자살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힘을 의미한다(에밀 뒤르켐, 『자살론』, 김충선 옮김, 청아출판사, 1994. 43면 참조).

실현 불가능한 욕망들을 충족시킨다고 한다. 작가는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결핍감과 은폐된 욕망을 인물들을 통해 실현시키거나, 때로는 응어리진 내면의 불만들을 토로한다는 것이다. 이와 연결하여 희곡 작가는 무대 위에 재현된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느 식으로든 ‘울분을 풀어’ 내는 자라고 할 수 있겠다.<sup>78)</sup>

본고에서는 김우진의 희곡을 심리학적인 분석에 기대어 살펴보았다. 즉 작가와 작품과의 상관성을 심리의 전이관계로 파악하며 고찰하였다. 모성에 결핍과 여성에 대한 양가 감정, 아버지 콤플렉스와 자기혐오, 그에 따른 불안한 자아와 죽음의식 등 작가의 심리와 극중 인물들의 심리를 연관지으면서 작품을 분석하였다.

살펴본 결과, 일찍이 어머니와 사별한 김우진은 유난히도 어머니에 대한 정을 그리워한 듯 하다. 그의 시나 일기 등 고백적인 글 등에서도 이를 반증하는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모성애에 대한 갈구가 강한만큼, 모성회귀 본능도 강함을 살필 수 있었다. 그것은 작중 인물들에게 투영되어 나타나는데, <난파>의 시인, <산돼지>의 원영 등에게서도 볼 수 있다. 인물들은 주로 어머니의 애정이 결핍되어 있고, 그 정을 그리워한다. 그리고 갈등 구조에서 주로 여성 인물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주를 이루는데, 이것은 작가의 모성에 대한 무의식적 집착이 여성(모성=여성)인물들을 선호하게끔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78) 물론 작가가 아닌 일상인들도 창조적인 행위가 아닌 또 다른 무엇으로, 자신의 내면의 욕동들을 무의식적으로 표출시키는 경우가 있다. 프로이트는 일례로 일상인들은 백일몽이라는 몽상을 통하여 욕구를 만족시키기도 하는데, 무질서하고 황당한 공상이기에 그것을 밝히기 꺼린다고 한다. 그러나 예술가는 자신의 백일몽을 다루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언급들을 피하면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능력의 소유자로서 질서있는 구조적 장치를 지닌 작품을 통하여 몽상을 풀어낸다. 즉 예술가는 일반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왕성한 욕구를 가진 자들로서 그들은 창조를 함으로써 신경증적인 현실도피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김우진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도 자신을 방기한 채 떠나버린 어머니이기에 원망도 강했던 듯 싶다. 작중 인물들의 대사에 표출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바로 이를 반증하기도 한다. 어머니를 향한 애증의 감정은 여성 인물을 바라보는 주인공의 파탄적인 시선에서도 드러난다. <두테기 시인의 환멸>에서 원영이가 구여성인 아내와 신여성인 정숙 사이에서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난파>의 시인이 어머니, 계모들, 비비와 카로로메 등의 하나이면서도 다른 여성들에게 애정과 증오의 심리를 드러내며, <산돼지>의 원봉이가 봉건적인 영순과 근대적인 정숙 사이에서 안주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이를 보여주는 예이다.<sup>79)</sup> 나아가 양가심리는 인물들의 성격으로 고착되어, 삶에 있어서 향방을 선택하는데 저해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늘 도정의 불안한 삶을 사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김우진의 불안한 삶의 여정이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작가에게 있어서 모성에 결핍은 일종의 심리적인 틈새이고, 이 공허감이 내면에 하나의 상처로서 자리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김우진의 아버지 역할의식은 논자들에 의해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다. 그런데 김우진의 아버지의식은 무조건 부정의 대상이라기보다 닳고 싶은 긍정적인 존재에 더 가깝다고 보여진다. 남보다 더한 정력과 천재성을 가진 아버지이기에 그에겐 존경의 념(念)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아버지만큼 ‘성공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나약하다고 느낀 것이다. 그런데 그에게는 ‘개성’과 ‘자유’와 ‘낭만’ 등으로 언급된 예술가적 소양이 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비현실인 몽상가로 머물게 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성향은 아버지와 다른 그만의 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우진은 여전히 봉건적인 사고 속에서 아버지 잣대로 자신을 재고 무능하고 나약한 지식인에 불과하다는 자괴감에 빠

79) 이는 작가 김우진이 아내와 윤심덕 둘 중의 어느에게도 정착하지 못한 것과도 연결될 수 있겠다.

져 있었던 듯 싶다. 작품 속의 인물들에게도 작가의 모습이 투사되어 있다. <난파>의 시인이나 <산돼지>의 원영이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 비하에 빠져 있으며, 아버지의 유업을 지켜내지 못한데서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므로 차라리 사회적 책무(<난파>의 시인, <산돼지>의 원봉)나, 가족에 대한 도리(<두데기 시인의 환멸>의 원영)와 이연을 해 버리고 싶은 역설적인 심리가 된다.

또한 김우진의 시나 평론, 일기 등에서 삶의 불안감과 함께 그로부터 벗어나고픈 욕망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벗어나기가 죽음으로 그려졌다. 그의 글을 보면, 죽음은 모든 결핍과 욕망의 사라짐이며,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획득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어머니 품으로 돌아감으로 나타난다. 작가의 심리를 반영하는 인물들도 모성에 결핍에서 형성된 무의식적 지향과 아버지 억압으로부터 비롯된 의식적 지향 사이의 괴리감 속에서 갈등한다. 자아와 이드(모성에 갈망), 자아와 초자아(아버지 억압), 개인적 자아(개성)와 사회적 자아(윤리)의 갈등에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불안한 자아는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하고 자기파괴 본능인 죽음을 부른다. 그리고 그 죽음은 인물들에게 어머니의 품이자 안식처나 도피처가 된다. <난파>의 분열된 시인이 결국 난파당하면서 행복해 하는 것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고찰한 바, 작품은 작가의 심리적 투사물로서 작가의 결핍과 욕망이 작중인물을 통해 드러남을 살필 수 있었다. 그것은 때로는 직접적으로 혹은 은폐된 채 인물들에게 반영되어 있다. 또한 마음의 움직임을 드러내는 행동이 어떤 양상을 띠는가는 작가의 현실적인 행동상을 반영함이며, 혹은 작품이라는 허구적 세계를 빌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행동이 작중인물을 통해 실현된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 작가와 작품은 서로 심리적 전이 관계에 놓여 있다. 이것은 김우진만이 아닌 모든 작가와 그 작품과의 관계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작가의 심리적 양태에 따라 그 작품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

듯이, 작가 김우진은 모성에 결핍과 아버지 콤플렉스라는, 가족 내의 부모로부터 형성된 심리적 결핍감이 유난히도 강한 듯 하다. 그것은 바로 작품의 성향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희곡들은 가족이라는 일차사회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인간의 내적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모성/부성의 독립적인 구조 안에서 아들이라는 존재가 겪는 심리적 갈등이 부각되어 있는 것이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모성이라는 예술적 기질/ 부성이라는 사회적 기질, 혹은 개성/도리 등 서로 위배된 욕망과 억압 속에서 방황하는 불안한 자아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다. 또한 인물들의 최후에서 드러나듯 내적 혹은 외적 장애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하고 자멸해 가는 나약한 인간상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현실에 대한 작가의 패배주의적인 시선이 투사된 것이라 하겠다.

## 참고 문헌

### 1. 기본자료

- 서연호·홍창수 편, 『김우진전집』(1)(2), 서울: 연극과 인간, 2000.  
 유민영 편, 『김우진작품집』, 서울: 형설출판사, 1979.  
 한국극예술학회 편, 『한국대표희곡선집』 1, 서울: 태학사, 1996.

### 2. 단행본

- 김열규 외, 『정신분석과 문학비평 개관』, 서울: 고려원, 1992.  
 데이비드 스테포드 클라크, 『한권으로 읽는 프로이트』, 최창호 옮김, 서울: 푸른숲, 1997.  
 에밀 뒤르켐, 『자살론』, 김충선 옮김, 서울: 청하출판사, 1994.  
 알프레드 알바레즈, 『자살의 연구』, 최승자 옮김, 서울: 청하, 1995.  
 양승국, 『김우진, 그의 삶과 문학』, 서울: 태학사, 1998.

- 에리히 프롬, 『프로이트 사상의 재조명』, 이경식 옮김, 서울 : 전망사, 1981.
- 자크 라캉, 『욕망이론』, 권택영 편, 서울 : 문예출판사, 1994.
- 지그문트 프로이트,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임흥빈 · 홍혜경 옮김, 서울 : 열린책들, 1996.
- , 『예술과 정신분석』, 정장진 옮김, 서울 : 열린책들, 1997.
- , 『억압, 증후 그리고 불안』, 황호식 옮김, 서울 : 열린책들, 1997.
- , 『문명 속의 불만』, 김석희 옮김, 서울 : 열린책들, 1998.
- , 『창조적인 작가와 몽상』, 정장진 옮김, 서울 : 열린책들, 1998.
- , 『정신분석학 입문』, 서석연 옮김, 서울 : 범우사, 1992.
- 켈빈 S. 홀, 『프로이트 심리학』, 백상창 옮김, 서울 : 문예출판사, 1993.

### 3. 논문

- 김성희, 「〈난파〉의 등장인물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한국현대극작가론』 1, 서울 : 태학사, 1996.
- 김종철, 「〈산돼지〉 연구」, 『김우진』, 서울 : 태학사, 1996.
- 민병욱, 「삽화극적 요소와 현실인식」, 『한국현대극작가론』 1, 서울 : 태학사, 1996.
- 서연호, 「김우진의 문예 비평론」, 『동시대적 삶과 연극』, 열음사, 1997.
- 신용남, 「김우진 희곡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82.
- 이미원, 「김우진의 희곡과 표현주의」, 『경희 어문학』 7, 경희대 국문과, 1986.9.
- 유민영, 「선각자 김우진의 연극 실험」, 『단국어문논집』 1, 1995.
- , 「서구에의 탐닉과 자기파열」, 『김우진』, 서울 : 태학사, 1996.
- 홍창수, 「김우진의 표현주의와 ‘난파’연구」, 『목원어문학』 12집, 1993.12.

■ ABSTRACT

## A Study on Kim Woo-Jin's Drama

-Focused on Author's Psychological Empathy into Drama Characters-

Yun, Keum-s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Kim Woo-Jin's dramas in a psychoanalytical way, focusing on the correlation between author and his works in the lights of his psychological empathy into the characters.

First, in terms of maternity deficiency and adoption psychology, his characters are mostly deficient in maternity, missing it. At the same time, they feel bad for their mothers who passed away from them, which can be summed up as adoption psychology. Thus, their personality would be formed in a negative way, making their life course distorted. In short, because the author's mother passed away earlier, his missing of maternity and unstable life thereafter is well featured in his works.

Second, in terms of father complex and self-abhorrence, the author seem to be eager to resemble his father who was a positive rather than negative being. Thus, Kim Woo-Jin seems to be shameful of himself who is less able and more frail than his father. His characters are also incompetent and feeble. They are aware of their inability and even disgrace themselves, while feeling guilty for their inability to succeed their family heritage. Quite ironically, they tend to show some negative psychology, wishing to escape from their social responsibility and family loyalty.

Third, in terms of anxiety and suicidal psychology, Kim's poems, essays or diaries seems to see "death" as escape from the oppressing reality. He thinks that "death" implies loss

of every deficiency and desire as well as freedom from oppression. His characters experience conflicts between ego and id (yearning for maternity), ego and super ego (father's oppression), and between personal ego (personality) and social one (ethics). Most of them also seem to be conscious shrewdly of suicide due to their oppressing anxiety.

As discussed above, literary works well reflect their author's psychology : sense of deficiency and unrealized desires in this case, Such a sense is directly or evasively reflected in the characters. Characters' behaviors also reflect author's ones in the real world. Otherwise, author's desires are at times realized by his characters in the fictional world. As it were, author's psychology is empathized into his characters.